

< 要 約 >

I. 東南亞 3國 經濟의 概觀

1. 東南亞 3國 經濟의 位相

- (베트남) 고도 성장과 함께 신흥 거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95년 아세안 가입에 가입한 이후 인근 국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한편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므로써 지역 공동 번영에 기여
- (필리핀) 정치적 안정과 함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新신흥공업국으로 浮上하고 있으며 클라크 공군 기지와 수빅灣을 이용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 역할 기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장 이룩한 나라로서 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시아경제협약체」 결성 적극 추진
- (한국과의 경제협력) 3국과의 교역은 91년 41억 달러에서 95년 94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총교역액 대비 3.6%에 불과함. 또한 95년 해외투자의 19.4% 차지

2. 最近 經濟 動向

- (베트남) 1989년이래 가속화된 경제 개혁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반면 고급 인력의 부족과 높은 실업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필리핀) 정치적 안정과 함께 93년 이후 고도 성장의 기틀 마련
 - 94년 5.1%, 95년 5.7%, 96년 상반기 7.1% 성장
- (말레이시아) 1988년이래 연평균 8% 이상의 고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소한 9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II. 우리나라와의 關係

1. 政治 및 通商 關係

- (베트남) 89년 이래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 교류의 급증으로 국교 재개의 필요성이 높아져 92년 재수교하였으며 그후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
- (필리핀) 국제 사회에서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무역, 항공, 경제기술협력,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등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우호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양국간에 문화, 항공,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등의 협정을 맺고 있음

2. 經濟 交流 關係

- (베트남) 재수교 이후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국으로 등장
 - 우리나라는 95년 對베트남 투자국 중에서 4위를 차지함
- (필리핀) 최근 들어 필리핀 수출가공지대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95년 우리나라는 약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 전년 대비 395%의 증가율을 기록
-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對말레이시아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95년 현재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우리 기업은 전자산업이 주종

III. 投資 環境

1. 베트남

- (2000년 社會主義 經濟의 安定 및 開發 戰略)
 - 인프라, 농업, 공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목적을 설정, 이를 구체화시키는 5개년 계획을 수립
- (投資 環境)
 - 풍부한 천연 자원과 노동력 보유, 한국의 1/20에 불과한 임금 수준 등 투자 대상국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
 -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2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輸出加工區 제도, BOT 방식의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사업 기간의 연장, 조세 감면 등을 도입 또는 확대하였음

2. 필리핀

- (필리핀 2000 비전)
 - 2000년에 신흥공업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경제 및 제도 개혁을 골자로 하는 8대 경제 발전 기본 방향을 제시
 - 전력난 해결,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세 유지, 수출 환경 개선, 지방 경제 활성화, 지방 정부 기능 활성화, 정부 행정 합리화, 정부 지원 강화, 법제의 일원화
- (投資 環境)
 - 97년 홍콩 반환을 계기로 동남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국내 치안 및 전력 사정의 개선,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을 개선

3. 말레이시아

○ (VISION 2020)

- 1993년 제창된 국가 개발 청사진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실천 목표: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1인당 GNP 10,000 달러(1990년 가격 기준) 달성

○ (投資 環境)

- 일관된 투자 유치 정책, 잘 발달된 인프라, 풍부한 숙련 노동자 등 외국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
- 취약한 산업 구조와 협소한 시장의 극복을 위하여 첨단 기술 위주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 지향 정책 기조의 외국인 투자 정책 실시

IV. 有望 進出 分野 및 戰略 方向

1. 有望 産業 分析

- (베트남) 제조업에서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며, 대륙붕 개발 등 광업의 성장이 예상됨
- (필리핀) 전력 부족 해소를 위한 에너지 산업과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수리 조선 및 물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말레이시아) 고부가가치의 전자 산업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며 새로운 수도 건설에 따라 건설업이 활기를 띠 전망

2. 有望 進出 事業 分野

- (베트남) 자원 개발 또는 관광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많은 분야
- (필리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야(사회간접자본 등), 지리적, 시장적 특성을 활용하는 분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단순 조립제조업
- (말레이시아) 건설업 및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에 도움이 되는 분야(공작기계, 전자 등)

3. 3國 進出 戰略의 方向

- (베트남) 경제발전 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 전략 필요
- (필리핀) ODA 또는 EDCF 자금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이후 본격적인 산업 진출 전략 모색
- (말레이시아) 단순한 제조업 진출 전략을 지양하고 말레이시아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방향(고부가가치 및 첨단 산업)으로 진출하는 전략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ASEAN 역내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 필요

I. 東南亞 3國 經濟의 概觀

○ (베트남)

- 신흥거대시장인 동시에 아세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
- 아세안 지역에 노동력 공급 및 역내 자본의 주요 수요 국가
- 1989년 개방 이후 안정적인 고도 성장 지속

○ (필리핀)

- 90년대 이후 정치적 안정화를 바탕으로 新신흥공업국으로 부상
- 94년 이후 매년 5%를 상회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 아세안 국가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
- 88년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1. 東南亞 3國 經濟의 位相

풍부한 천연 자원
및 노동력을 바탕
으로 무한한 잠재
력을 갖고 있음

○ (베트남)

- 신흥거대시장으로 부상
- 풍부한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고도 성장 전망
- 아시아의 마지막 성장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가임
- 아세안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 1995년 아세안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인근 국가에는 노동력을 공급하고,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므로써 지역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新신흥공업국으로
새롭게 부상

○ (필리핀)

- 90년대 이후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면서 아시아 최빈국에서 新신흥공업국(New NICs)으로 떠오르고 있음
- 미군이 떠난 수빅灣과 클라크 공군 기지의 전술적 입지를 활용 대규모 물류 및 교통 요지로 동남-동북 아시아를 잇는 아시아의 중심 역할이 기대됨¹⁾

1) 수빅만은 미국의 거대 물류 회사인 FedEx가 입주, 아시아 물류 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클라크 공군 기지는 필리핀 정부에 의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과 상공업시티 건설 계획이 잡혀 있음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Vision 2020' 계획을 통해 2020년에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²⁾ 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한국과의 교역은 90년대 들어 급성장, 전체 해외 투자의 약 20% 차지

○ (한국과의 경제협력)

- 90년대 들어 한국과 3국간의 교역은 큰 규모로 증가 (91년 41억 달러에서 95년 94억 달러)
- 한편 최근 이 지역에 대한 해외 투자도 활성화되면서 작년엔 9.5억 달러(전체 해외 투자의 19.4%)에 달함

2. 최근 經濟 動向

1989년이래 고성장, 저물가의 안정 성장 구도 지속

○ (베트남)

- 1989년이래 가속화된 경제 개혁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94년 실질성장률이 8.8%(개방 정책이후 최고 성장률)

<표 1>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추이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전망치)
GDP 성장률(%)	6.0	8.3	7.5	8.8	6.5	8.9
물가상승률(%)	67.4	17.6	5.3	14.4	11.0	4.8
무역수지(백만달러)	-63	-60	-330	-900	-1,800	-3,900
외채현황(백만달러)	8,372	8,512	-	-	-	7,899
환율(1,000D/달러)	11,700	10,500	10,800	10,900	11,015	11,000
1인당 GNP (달러)	220	-	-	240	300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베트남)」

EIU, *Economic Intelligence Unit*, 1996.

주: 환율은 기간 평균이며, 96년 환율은 기말 전망치임

2) EAEC는 미국, 호주 등 백인 국가를 제외한 순수 아시아 국가들만의 경제공동체 결성(ANIES 4개국, ASEAN 6개국, 일본, 중국, 미얀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불복화가 심화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도 EAE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높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경제의 안정화 기조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91년 67.4%에 달하였던 물가상승률이 95년 11.0%로 낮아졌음)
- 96년 상반기에도 고속 성장을 지속하여 9.3%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음
- 반면 고급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실업률이 높은 점이 베트남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업률은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대 군인의 증가와 국영 기업의 대규모 감원 등으로 실업 문제의 단기간내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정치적 안정성 확보로 고도 성장의 기틀 마련

○ (필리핀)

- 80년대 ASEAN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던 필리핀은 93년 이후 고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
- 93년까지도 2.3%의 성장에 그쳤으나, 이후 정치적 안정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외국인 투자와 대외차관 도입의 증가로 94년 5.1%, 95년 5.7% 성장
- 미군 철수 이후 수빅만과 클라크 공군 기지를 활용한 국내 물류체계의 획기적인 확충도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였음
- 수출의 증가(19.8%), 제조업 및 건설업의 호조에 힘입어 96년 상반기 필리핀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7.1% 성장을 보임

<표 2> 필리핀 주요 경제 지표 추이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 1~6
GDP 성장률(%)	0.4	1.0	2.3	5.1	5.7	7.1
물가상승률(%)	17.7	7.8	7.6	9.0	8.1	11.0
무역수지(백만달러)	-	-4,517	-6,250	-7,850	-9,091	-5,035
외채현황(백만달러)	28,900	30,900	33,800	37,700	40,500	40,600
환율(Peso/달러)	-	25.28	27.24	26.36	25.71	26.23
일인당 GNP (달러)	729	841	912	963	1,079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필리핀)」.

주: 환율은 기간 평균이며, 96년 환율은 7월말 기준.

1988년 이래 8% 이상의 고도 성장 지속

○ (말레이시아)

- 1988년 이래 연평균 8% 이상의 고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소한 9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성공의 비결
 - 풍부한 천연 자원 : 고무, 팜유, 목재, 천연 가스, 원유, 주석 등
 - 일관성있는 경제 정책 : 제조업의 투자 및 육성
 - 잘 정비된 사회간접자본
- 말레이시아 경제는 94년부터 고도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었으나 96년 들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GDP 성장률은 95년 9.5%에서 96년에는 8.5%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지난해 24.6%의 증가에서 올해는 1.85%에 머물 전망이며, 수출은 지난해 20.2% 증가에서 4.1% 증가로 둔화될 전망이다

<표 3>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 지표 추이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전망치)
GDP 성장률(%)	8.6	7.8	8.3	9.2	9.5	8.5
물가상승률(%)	4.4	4.7	3.6	3.7	3.4	3.5
무역수지(백만달러)	3,235	849	1,458	875	-3,858	-326
외환보유고(백만달러)	10,886	17,228	27,249	23,853	27,845	-
외채현황(백만달러)	16,000	16,400	19,200	22,900	27,500	-
환율(RM/US\$)	-	-	2.70	2.55	2.50	2.49
1인당 GDP(달러)	2,474	2,882	3,224	3,426	3,836	4,422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필리핀)」

EIU, *Economic Intelligence Unit*, 1996.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Internet 자료)

주: 환율은 기간 평균이며 96년의 환율은 7월말 기준임.

II. 우리나라와의 關係

- (베트남)
 - 74년 공산화 이후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경제 교류의 증가에 따른 수교 필요에 따라 92년 양국간 국교 정상화
 - 총수입액중 對韓 수입이 20% 이상일 정도로 긴밀한 경제적 관계
- (필리핀)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해온 우방국
 - 우리나라는 95년에 필리핀의 세번째 투자국으로 부상
- (말레이시아)
 - 전통적으로 정치적 이슈보다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호 관계 지속
 - 우리나라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95년 현재 12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음

1. 政治 및 通商 關係

경제교류 증대에
따라 92년 12월
국교 재개

- (베트남)
 - 1974년 베트남의 공산화와 함께 국교가 단절되었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 교류의 급속한 확대에 양국간 국교 재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수교의 필요성에 따라 92년 12월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이후 경제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표 4> 베트남과의 政治·外交 關係 略史

1956. 5.	南베트남과 수교
1974. 4.	越南 공산화로 대사관 철수, 외교 관계 단절
1983.	간접 교역 재개
1988.	직접 교역 재개
1991. 7.	對베트남 경제제재조치 완화 및 경협 확대 추진 발표
1991. 10.	박철언 체육부 장관 베트남 방문(종전후 최초의 정부인사 방문)
1992. 1.	對베트남 직접 투자 허용
1992. 12.	한·베트남 국교 수립
1993. 5.	베트남 키에트 수상 방한(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체결)
1993. 8.	호지민 영사관 개설
1994. 5.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1994. 8.	이영덕 총리 베트남 공식 방문
1995. 4.	Do Muoi 공산당 서기장 방한
1996. 8.	김수환 국회의장 베트남 방문

- 국제정치 무대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입장 지지
- (필리핀)
- 한국전 참전과 최근의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지지 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왔음
 - 동남아 국가중 브루나이와 함께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
 - 우리나라와는 무역('61, '78), 항공('69), 경제기술협력('83), 이중과세방지('86), 투자보장('94) 등의 협정을 체결하였음

<표 5> 필리핀과의 政治·外交 關係 略史

1949. 3.	외교 관계 수립
1950. 9.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1954. 1.	양국 공사관 설치
1958. 2.	대사급 외교 관계로 승격
1966. 10.	박정희 대통령 필리핀 방문
1982. 11.	필리핀 비라라 총리 방한
1986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1994. 3.	투자보장협정 체결
1994. 11.	김영삼 대통령 필리핀 방문
1996. 5.	도밍고 시아존 필리핀 외무장관 방한

- 정치적 이슈보다
경제 협력을 바탕
으로 관계 지속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와의 외교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 협력과 교역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표 6> 말레이시아와의 政治·外交 關係 略史

1962. 5.	한국대사관 개설(북한과는 73년 6월 수교)
1964. 3.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개설
1966. 2.	박정희 대통령 말레이시아 공식 방문
1983.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1987. 6.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 및 양국 경제협력위원회 합동 회의
1988. 4.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1992. 10.	말레이시아 국왕 방한
1995. 7.	라피다 상공장관 투자유치사절단 인솔 방한
1996. 9.	한승수 부총리 말레이시아 방문

2. 經濟 交流 關係

재수교 이후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하
게 진행

○ (베트남)

- 재수교 이후 교역 및 투자 증가 : 1992년 12월 재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對베트남 수출입이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중요한 교역국으로 부상(베트남 전체 수입액중 20% 이상)
- 95년 對베트남 투자국 중에서 대만, 일본, 미국에 이어 4위

<표 7>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경제 교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91	92	93	94	95	96. 1~9
수출 (증가율)	198.9 (70.3)	436.2 (119.2)	728.3 (67.0)	1,027.4 (41.1)	1,351.0 (31.5)	1,152.3 (15.8)
수입 (증가율)	41.2 (23.3)	57.3 (39.3)	90.6 (58.1)	113.8 (25.5)	193.6 (70.2)	176.7 (19.5)
무역수지	157.7	378.9	637.7	913.6	1,157.4	975.6
對베트남 직접투자액	40.9	108.6	455.4	275.0	556.3	-

자료: KOTRA, 「국가정보(베트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便覽』, 1995.

우리나라는 對필리
핀 3위의 투자국으
로 부상

○ (필리핀)

- 90년대 들어 꾸준한 교역 증가 : 양국간의 교역량은 92년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95년에 21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나타냈음
-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수출국중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액으로는 5위의 국가임
- 對필리핀 직접 투자 증가 : 95년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투자는 수출가공지대³⁾에 대한 투자의 급증으로

일본, 미국에 이어 투자 순위 3위 국가로 부상함⁴⁾

<표 8> 우리나라의 對필리핀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91	92	93	94	95	96.1~9
수 출	674.8	745.9	974.9	1,212.4	1,493.1	1,401.9
(증가율)	(34.8)	(10.5)	(25.3)	(29.7)	(23.2)	(29.9)
수 입	322.7	264.9	317.6	411.8	610.8	441.8
(증가율)	(19.6)	(-17.9)	(19.8)	(29.7)	(48.0)	(-5.8)
무 역 수 지	352.1	481.0	617.3	800.6	882.3	960.1
對필리핀 직접투자액	48.92	43.36	44.36	15.80	155.58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필리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필리핀便覽』, 1996.

말레이시아는 우리
기업이 첨단 고부
가가치 산업에 투
자하기를 희망

○ (말레이시아)

- 상호보완적 경제 협력 추진 : 우리나라는 안정적 자원 확보 및 무역확대를, 말레이시아는 우리 기업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부문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첨단산업 위주의 직접 투자 진행 : 95년 현재 건설 중이거나 조업중인 우리 기업은 약 120여개로 전자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표 9>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91	92	93	94	95	96.1~9
수 출	1,037	1,136	1,430	1,652	2,951	2,926
(증가율)	(46.7)	(9.5)	(25.9)	(15.5)	(78.6)	(37.2)
수 입	1,869	1,758	1,947	1,876	2,515	2,070
(증가율)	(17.8)	(-5.9)	(10.8)	(-3.6)	(34.1)	(15.0)
무 역 수 지	-832	-622	-517	-224	436	856
對말레이시아 직접 투자액	713.3	38.8	39.2	160.4	241.6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말레이시아)」

- 3) 필리핀 정부는 현재 정부가 개발한 수출가공지대 (Batan, Baguio City, Mactan, Cavite)와 민간에 의해 개발된 공단이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들 수출가공지대의 입주 조건은 생산 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Export Oriented Enterprise로 규정하고 있음
- 4) 주요 국가별로는 일본이 336억 페소 (13억 달러,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37.6%), 미국이 200억 페소 (22.4%), 한국이 40억 페소, 영국이 33억 페소 (3.6%)를 차지함

III. 投資 環境

○ (베트남)

- (경제 개발 계획) 「2000년 사회주의 경제적 안정 및 개발 전략」에 따라 인프라, 농업, 공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 수립
- (투자 환경) 인구 7천만의 자체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1/20에 불과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도 적극성을 띄고 있음

○ (필리핀)

- (경제 개발 계획) 2000년에 신흥공업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필리핀 2000 비전」을 통하여 8대 경제 발전 기본 방향 제시
- (투자 환경) 홍콩 반환을 계기로 동남아와 동북아를 잇는 제2의 홍콩 역할이 기대되며,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말레이시아)

- (VISION 2020) 마하티르 수상이 1991년 2월 제창한 장기적 국가 개발 청사진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투자 환경) 아세안, 중국, 인도차이나 및 미얀마 시장에 접근이 쉬우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첨단 기술 위주 제조업 육성 및 수출 지향 기조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1. 베트남

1) 經濟 開發 計劃

인프라, 농업, 중소기업 육성 중심의 경제 개발 계획

○ 「2000년 社會主義 經濟의 安定 및 開發 戰略」

-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 사회간접자본: 통신 및 운송 분야, 특히 해상 운송에 대한 최우선적 투자 방침에 따른 기존 항구 개보수 및 신항구 건설, 남북 연결 철도 및 주요 국도 개보수 사업 추진 등
- 농업: 안정적 식량 공급 및 농산물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한 용수 개발, 비료 공급 등의 식량 증산 사업 추진 및 법적·제도적 정비

- **공업:** 농수산물 가공 분야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출 지향형 중소기업 육성 및 전력 및 원유개발 분야 집중 육성
- **서비스업:** 소매업 분야의 민간기업 참여 권장 및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 유도

2) 投資 環境

인구 7천만의 자체 시장, 풍부한 물적 및 인적 자원, 저렴한 임금 등 여러 가지 장점 보유

○ (개황)

- 베트남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위치 이외에도 인구 7천만의 자체 시장, 풍부한 물적 및 인적 자원 보유, 한국의 1/20에 불과한 임금 수준 등 투자지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
- 베트남은 1986년 6월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시장경제 도입과 대외 개방을 선언
- 이후 1988년 초 「外國人投資法」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바탕 마련
- 베트남은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 정비, 최저 임금 인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또한 「메콩강 유역 개발 계획(GMS: Greater Mekong Subregion Project)」의 참여 국가로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최근 2차에 걸친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단행

○ (투자 정책)

- 1993년 베트남 정부는 2000년까지 국내 총생산을 1990년 수준의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하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1987년 12월 29일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2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輸出加工區 제도, BOT⁵⁾ 방식

5) BOT란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시 자금 조달 방법의 한 가지로 건설(Build)후 일정 기간 운영권을 행사(Operate)하다가 되돌려 주는(Transfer) 방식을 뜻한다. 대우그룹은 라오스의 후에이오 댐 건설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여 댐의 완공후 대우가 30년간 전력을 판매한 다음 라오스 정부에 이양할 예정

의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사업 기간 연장, 조세 감면 등을 도입 또는 확대하였음

- 외국 합작 투자 기업은 이익 발생 첫 해부터 기산하여 2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그후 2년간은 법인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2. 필리핀

1) 經濟 開發 計劃

2000년 신흥공업국으로 도약을 위한 8대 경제 발전 기본 방향 제시

○ (필리핀 2000 비전) 2000년에 신흥공업국으로 도약을 목표하는 8대 경제 발전 기본 방향 제시

- ① 전력난 해결: 전력 소비 감소 유도, 전력 요금 체계 정비
- ②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세 유지: 중앙통화기구의 설립, 외국인투자법 개정
- ③ 수출 환경 개선: 수출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자금 확대, 「수출입개발협의회」 확대 운영
- ④ 지방 경제 활동의 활성화
- ⑤ 지방 정부의 기능 활성화
- ⑥ 정부 행정의 합리화
- ⑦ 민간 부문의 정부 지원 강화 유도
- ⑧ 법제의 일원화

2) 投資 環境

동남아와 동북아를 잇는 제2의 홍콩 역할 기대

○ (개황)

- 그동안 필리핀은 정정 불안, 치안 불안, 전력 부족 등의 이유로 외국 기업들에게 외면당해 왔으나 최근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투자 유망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음
- 외부적으로는 97년 홍콩 반환을 계기로 동남아와 동

이다. 이에 비해 BOO는 소유(Own)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야를 연결하는 제2의 홍콩으로의 역할이 기대됨

-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안정, 국내 치안 및 전력 사정의 개선,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의 장애 요인 제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외국인 투자의 장려로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달성

○ (투자 정책)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필리핀의 기본 정책은 국내 원자재 및 노동력을 활용하는 분야의 육성, 수입대체산업의 지원, 수출지향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장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투자 관련 법규는 1987년 「Omnibus Investment Code」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991년 「New Foreign Investment Act」에 의해 투자 여건 개선
- 투자 우선 순위 해당 분야의 투자 기업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투자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업종에 대해 100% 지분 소유 허용

3. 말레이시아

1) 經濟 開發 計劃

VISION 2020에서 향후 선진국으로 진입을 위한 국가 개발 청사진 제시

○ (VISION 2020)

- 마하티르 수상이 1991년 2월 제창한 장기적인 국가 개발 청사진으로 30년 후인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VISION 2020의 실천 목표
 -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 2000년 1인당 GNP 1만 달러 (1990년 불변 가격 기준)
- 중점 추진 방향 (5개 분야)
 - 과학 진흥 및 기반 기술의 개발
 -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 기술 습득
 - 고급 숙련 기술 인력 개발

- 환경 보존 및 보호
- 문화 환경 조성

2) 投資 環境

일관된 투자 유치 및 지원 정책 등을 통한 외국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

○ (개황)

- 외부 환경: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제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ASEAN 시장, 중국, 인도차이나 및 미얀마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내부 환경: 정부의 일관된 투자 유치 및 지원 정책, 인프라 조성, 풍부한 숙련 노동력 등 외국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

첨단 기술 위주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지향 정책기조의 외국인 투자 정책

○ (투자 정책)

- 취약한 산업 구조와 협소한 시장의 극복을 위하여 첨단 기술 위주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 지향 정책 기조의 외국인 투자 정책 실시
- 외국업체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1986년 「투자진흥법」을 도입하고, 1987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투자이익송금보장, 세금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제조업 부문에서 자본금 250만 링깃(미화 약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종업원 75인 이상인 경우에만 상공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면제를 통한 자유로운 투자 활동 보장

4. 投資 環境 長短點 比較

○ (장점)

- 베트남 :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가진 잠재력있는 시장임
- 필리핀 :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과 우수한

경제 발전 단계의
상이성으로 인한
각국 투자환경의
장단점

노동력이 있음
- 말레이시아 : 향후 동남아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과는 경제 구조 보완성을 살리는 경제 협력 가능

○ (단점)

- 베트남 : 사회간접자본 열악 및 사회주의적 요소 잔존
- 필리핀 : 산업발전의 불균형과 불안정적인 노동 시장
- 말레이시아 :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 시장과 고임금 추세

<국별 투자 환경 장단점 비교>

국가	장점	단점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천연자원 · 인구 7천만의 자체 시장 · 저렴한 노동력 (임금 수준이 한국의 1/30) ·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 · 미개발 단계의 천연 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개발 가능성 · 메콩강 유역(GMS) 개발 계획의 대상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 곤란 ·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토지 소유 불인정에 따른 토지 사용의 불편 · 관료주의 만연에 따른 과도한 행정 비용 지출 우려 · 공공 요금 및 생활비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적용 · 전력, 통신 시설, 도로 등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 낙후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으면서도 값싼 노동력이 풍부* · 천연자원 풍부 · 전반적 사회간접자본이 낙후되어 있지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련 사업 기회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 노동자의 해외 유출이 심하여 이들의 확보가 어려우며, 노동쟁의가 잦은 편 · 연관 산업 미발달로 원재료 및 중간재 확보가 어려움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다국적 기업들의 지역 본부로 주목을 받고 있어 향후 인근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잘 정비된 사회간접자본을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2천만으로 국내 시장 규모가 협소함 · 임금 수준이 여타 동남아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숙련공의 월 평균 임금은 360~400 달러 수준)

* 필리핀에서는 매년 대졸자 27만 명, 전문학교 졸업자 17만 명(이중 기술계 4만2천 명)의 고학력자가 배출되고 있음. 이는 말레이시아의 10배 수준임

IV. 有望 進出 分野 및 戰略 方向

- (베트남)
 - (유망 산업) 제조업에서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며, 대륙붕 개발에 따른 광업의 성장이 예상
 - (접근 전략)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전략 필요
- (필리핀)
 - (유망 산업) 전력 부족 해소를 위한 에너지 산업과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수리 조선 및 물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접근 전략) 대외 경협 자금을 활용한 기초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후 본격적인 산업 투자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 (말레이시아)
 - (유망 산업) 고부가가치의 전자 산업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며 새로운 수도 건설에 따라 건설업이 활기를 띠 전망
 - (접근 전략) 전기/전자와 같은 첨단 산업의 진출을 통해 ASEAN 역내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바람직

1. 有望 産業 分析

제조업, 광업 등이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관광업으로의 해외 자본 유입이 활발함

- (베트남)
 - 제조업: 1993년 이후 외국인 투자와 개인 기업들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제조업의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내수 시장은 아직까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나, 활발한 민간 기업의 활동으로 볼 때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됨
 - 관광업: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분야이며 외국인 투자의 20%가 이 분야에 집중되어 1993년 말 현재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 광업: 현재까지는 추정 매장량에 비해 발굴량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인근 해역 대륙붕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임

에너지, 건설, 자동차 산업이 유망

○ (필리핀)

- 에너지 산업: 1992~93년에 전력 위기 이후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설비 투자에 주력
- 1994~2010년까지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755억 달러로 예상
-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중심으로 구미계 은행들이 BOT 혹은 BOO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건설업: 상업지구 건설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 1995년에서 2000년까지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인프라개발기금 (Private Sect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에서 BOT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 경제가 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1994년 자동차 생산은 사상 최초로 10만 대를 넘어섬
-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100명 당 1대꼴임을 고려하면 향후 필리핀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

첨단 부문의 발전이 예상되는 전자 산업과 향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기대되는 건설업의 전망이 밝음

○ (말레이시아)

- 전자 산업: 대내외적인 경쟁 심화에 직면한 말레이시아 전자 산업은 노동집약적 조립 단계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로 전환 시도
- 전자 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단순 조립에서 PC생산 등 다양화 시도
- 건설업: 지속적인 주거 및 상업용 건설 경기의 호황과 함께 일련의 대규모 기간 시설 프로젝트에 의한 높은 성장세 지속
- 최근 4년동안 두자리수의 성장을 기록
- 'VISION 2020'에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주요 국가 사업으로 명기될 정도로 향후 건설업의 전망은 밝음

2. 向後 進出 事業 分野 選定

상이한 투자 환경에 적합한 각국별 진출 유망 분야 모색 필요

- 투자환경에 적합한 유망 분야 모색
 - 베트남: 자원 개발 또는 관광업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많은 분야
 - 필리핀 :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야(사회간접자본 등), 지리적, 시장적 특성을 활용하는 분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단순 조립제조업 등
 - 말레이시아 : 건설업 및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에 도움이 되는 분야(공작기계, 전자 등)

국가	분야	관련 투자 환경
베트남	광물 개발	· 미개발 광물 자원이 풍부 · 베트남 정부의 대륙붕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광물 자원 개발 및 관련 중장비 수출이 유망
	단순 경공업	· 주요 생필품 위주의 단순 경공업
	관광	·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기대되는 분야 · 95년 현재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은 약 1백만 명 정도이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
필리핀	전기/전자	·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분야
	자동차	· 관세율이 완성차의 경우 40%인데 반해 부품은 3%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활용한 자동차 조립 산업 진출 유리
	사회간접자본 건설	· 전반적인 SOC 부족에 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이 추진중 · BOT 방식에 의한 참여 가능
	수리 조선	· 미군 철수 지역인 수빅만의 시설 및 노동력 활용 가능 · 동남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
	물류 산업	· 미국의 FedEx社가 수빅만에 입주해 있고 향후 클라크 공군 기지에 국제 공항 건설 예정 ·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지역 물류 중심지로 적합
말레이시아	건설	· 2008년까지 Putrajaya 지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수도 건설
	공작 기계 등 자본재	· 전자, 자동차, 중화학공업이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자본재 산업이 거의 없으므로 이 분야의 진출도 가능
	전기/전자	· 첨단 부문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분야 진출이 유리

3. 3國 進出 戰略의 方向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전략 필요

○ 3國은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요구됨

○ (베트남)

-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기간별로 차별화된 접근 전략 필요
- 농업 개발 사업(비료, 농기계) →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사업 → 제조업 순으로 진출

○ (필리핀)

- 필리핀의 향후 경제 발전은 성공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로 시작하여 본격적인 산업 투자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⁶⁾ 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⁷⁾을 재원으로 활용

○ (말레이시아)

- 제조업 및 인프라 개발 투자에 집중
- 특히 제조업은 전기/전자와 같은 비교적 첨단 산업 부문에 진출하여 ASEAN 역내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원호, 전민규)

6)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증여·기술협력·정부차관 등의 양국간(bilateral) 유무상 원조와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금 등 다국간(multilateral) 원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세계 1위의 공여국은 일본으로 94년의 경우 132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우리나라 ODA 규모는 1억 4천만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7)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우리나라의 ODA 자금중 양국간 유상 원조에 해당된다. 개도국에 대한 차관 제공을 위해 1987년에 처음 만들어져 현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리 3.0%, 상환 기간 20~25년의 조건으로 스리랑카에 5,000만 달러가 제공된 사례가 있으며, 96년 5월 현재 24개국에 7억 1,2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EDCF 차관은 주로 사회간접자본 조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는 외부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담당하고 있다

<附錄 1> 韓國과 3國 經濟의 比較(95년 기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인구(만 명)	7,439	6,800	2,010	4,555
면적(만 km ²)	32.9	30.0	33.0	9.8
경제규모(억 달러)	210	766	810	4,517
1인당 국민소득(달러)	300	1,079	3,836	10,076
경제성장률(%)	6.5	5.7	9.5	9.0
물가상승률(%)	11.0	8.1	3.4	4.7
실업률(%)	15.0*	9.5	2.8	1.8
수출(억 달러)	52	174	747	1,232
수입(억 달러)	75	265	786	1,280
무역수지	-17	-91	-39	-48
환율(자국통화/U\$)**	11,015	25.71	2.50	774.70
외환보유고(억 달러)	8.8***	63.7	278.5	327.1
인구증가율(%)	1.71	2.23	2.24	0.90
문맹률(15세이상, %)	6	5	17	4

자료 : EIU, *Economic Intelligence Unit*, 199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은행, 『1995년 국민계정(잠정)』, 1996. 3.

CIA, *1995 World Factbook*, 1996.

* 1994년 자료

** 기간 평균

*** 1993년 자료

<附錄 2> 外國人 直接 投資 現況

1) 對베트남(95年)

(단위: 건,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건수	금액	88~95년	
				누계 금액	비중
1	대만	62	1,213.5	3,319.7	18.1
2	일본	59	1,187.9	2,081.6	11.4
3	미국	25	830.4	1,141.7	6.2
4	한국	47	556.3	1,506.5	8.2
5	버진군도	22	413.3	514.8	3.2

주: 순위는 95년 투자 금액 기준

2) 對필리핀(95年)

(단위: 건,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금액		~96년 6월	
		95년	96년 1~6월	누계 금액	비중
1	일본	1,307.6	267.3	3,109.6	25.2
2	미국	779.5	41.8	2,562.6	20.8
3	한국	154.6	56.1	488.9	4.0
4	영국	126.6	83.8	717.6	5.8
5	네덜란드	47.1	5.9	295.7	2.4

주: 순위는 95년 투자 금액 기준

3) 對말레이시아(95年)

(단위: 건,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건수	금액	89~95년	
				누계 금액	비중
1	일본	175	838.4	7,489.2	21.3
2	미국	42	720.8	4,307.6	12.3
3	대만	123	576.8	7,526.4	21.4
4	싱가폴	185	403.8	2,381.6	6.8
5	한국	20	241.6	1,552.4	4.4

주: 순위는 95년 투자 금액 기준

<附錄 3> 메콩江 流域(GMS : Greater Mekong Subregion) 開發 計劃**(1) 개요**

- ① (목표) 메콩강 프로젝트는 메콩강 주변 국가의 경제적 협력을 통한 해당 지역의 경제개발 가속화
- ② (대상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 운남성
 - 해당지역이 문화적 유산이 유사하고, 메콩강에 인접해 있으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특히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이 지역에 평화가 정착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2) 개발 계획

- (개발 방식) 공공 및 민간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를 하나로 묶는 정책 및 인프라 구축
- (우선 순위) 수송시스템, 에너지, 통신부문 등 인프라 우선 개발

(3) 평가

- ① 최대 4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
- ② 성장 가능성이 지대한 인근 6개국 시장으로의 선점 효과
- ③ 국내 산업의 연관 진출 효과

(4) 제약 요인

- ①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대부분 프로젝트를 수행할 재정적 능력이 없음
- ②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은 투자 관련 법규 및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투자 실행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 ③ 일부 국가에서 노동력 확보가 쉽지 않음

(5) 한국 기업의 유망 프로젝트

- 지난 6월 태국 방콕에서 있는 한·메콩강협력경제협의회와 아시아개발은행 및 메콩강 위원회(MRC)에서 한국 기업에 유리한 다음의 5개 프로젝트가 제시되었음
- ① 라오스-태국간 덴 힌 문 수력발전소 공동 건설 사업
- ② 태국-라오스-베트남 등 3개국 수도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
- ③ 태국-라오스-베트남을 연결하는 교량 및 항만 사업
- ④ 미얀마 야나다 해상에서 가스를 생산, 태국에 공급하는 야나다 가스관 사업
- ⑤ 중국 운남성-라오스-태국 등 3국을 통과하는 링 로드 개설 사업